

# 2007 세종학당 백서





# 차 례

## 제1장 세종학당의 설립 추진 경과

1.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의 확대 개편	06
● 추진 지시와 기본 계획의 모색	06
2. 세종학당 설립 추진 과정	08
2.1. 세종학당자문위원 협의회	08
2.2. 세종학당 설립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	12
3. 세종학당의 설립 정신	20

## 제2장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기본 계획

1. 한국어 국외 교육 현황과 문제점	26
1.1. 한국어 국외 교육 실태	26
1.2. 지역별 한국어 학습 수요 현황과 전망	28
1.3. 한국어 국외 교육의 문제점	29
2. 한국어 국외 교육 진흥 정책의 개선 필요성	31
2.1. 국제 언어문화 환경의 변화	31
2.2. 한국어 국외 교육 진흥 정책의 개선 필요성	31
3. 세종학당의 개념과 설립 목적	32
4.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34
5. 세부 추진 계획	35
5.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35
5.2.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제도 운영	41
5.3. 한국어 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42
5.4.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운영	43
6. 연도별 소요 예산 및 투자 계획	45

## 제3장 세종학당 운영 규정

<b>전문</b>	<b>48</b>
1. 총칙	48
2. 자문위원회	51
3. 교육과정	52
4. 교재	53
5. 강의	53
6. 교원	54
7. 운영 관리	55
8. 보칙	56
9. 부칙	56
<b>운영규정(외국어)</b>	<b>57</b>
1. 영어	58
2. 중국어	70
3. 일본어	78
4. 러시아어	86
5. 베트남어	100
6. 몽골어	116

## 제4장 세종학당 운영 세부 지침

<b>1. 일반 사항</b>	<b>130</b>
1.1. 설립 목적	130
1.2. 교육 목표	130
1.3. 교육 대상	131
1.4. 세종학당의 유형	132
<b>2. 교육 환경</b>	<b>133</b>
2.1. 시설	133
2.2. 장비	134
2.3. 교재	134

<b>3. 교육 인력</b>	<b>137</b>
3.1. 운영 책임자	137
3.2. 교원	138
3.3. 운영 요원	143
<b>4. 교육 과정</b>	<b>144</b>
4.1. 정규 과정	145
4.2. 특화 과정	146
4.3. 특별 과정	147
<b>5. 학사 관리</b>	<b>149</b>
5.1. 모집	149
5.2. 등록	150
5.3. 분반	151
5.4. 개강	153
5.5. 수업	153
5.6. 평가	153
5.7. 수료	155
5.8. 수료 후 관리	155
〈별지〉 관련 서식	156
<b>〈부록 1〉 세종학당 자문위원 명단</b>	<b>170</b>
<b>〈부록 2〉 세종학당 관련 보도 자료</b>	<b>171</b>



가  
나

## 제1장 세종학당의 설립 추진 경과

등  
비  
츠  
○



# 가나

## ● ● 제1장 세종학당의 설립 추진 경과 ● ●

### 1.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의 확대 개편

#### ● 추진 지시와 기본 계획의 모색

##### ○ 2006. 7. 10.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지시 및 지침 수령

- 동북아 지역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를 위한 국외 한국어교육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 원장께서 지시 및 기본 지침 제시
- 국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확대
-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 몽골과의 국가적 협력을 위한 문화상호주의적 방식 채택
- 재외 한국문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 ○ 2006. 8. 10. 한국어 보급 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서 작성

-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어문화학교'의 개설과 '한국어문화 보급협의회'의 결성과 관리
- '한국어문화학교'에 표준 한국어 보급 프로그램(표준 교재 및 동영상)의 지원
- 재외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어 능력 우수자'의 선발 및 연수 지원
- 재외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한국어문화학교'와 '한국어문화보급 협의회'의 한국어 전문가 연수
- 재외 한국문화원용 인터넷 서버 구축 및 한류 한국어 교재와 동영상의 지원
- 동북 삼성과 몽골을 연결하는 '한국어 문화권'의 구축

# 이 자 사

## ○ 2006. 8. 18. 동북아문화공동체 벨트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재지시

- 원장께서 동북아 지역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를 위한 국외 한국어 교육 기본 지침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지시
- 국외한국어 보급사업이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으로 확대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재작성
- 2006. 9. 7.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안) 작성
  - 추진 목표와 배경
  - 동북아론의 배경과 가치
  -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4대 전략
  - 추진 과제와 소요 예산

## ○ 2006. 9. 13. 한국어의 해외보급 확대를 통한 한국어의 세계화 추진 전략(안) 작성

-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축 전략(안)에 따라 한국어 세계화 추진 전략 안을 마련

## ○ 2006. 9. 11. ~ 9. 14.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합숙 토론회

## ○ 2006. 9. 28.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보고서 원내 토론회 개최

## ○ 2006. 10. 20. 동북아 문화공동체 개설을 위한 전략 검토 회의 개최

- 장 소: 대우재단 빌딩 2층 회의실
- 안 건: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 전략 보고서 검토
- 참석자:
  - 원내 참석자  
언어정책부장 손희하, 한국어보급팀 학예연구관 이준석,  
학예연구사 김원희

# 가나

- 원외 참석자
  -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 남영신
  - 조선대학교 법대 교수 서순복
  -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광석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장우
  - 상명대학교 교수 조항록
  - 한류전략연구소 신승일

## 2. 세종학당 설립 추진 과정

### 2.1. 세종학당 자문위원 협의회

#### 2.1.1. 2007년 제1차 세종학당 자문위원 협의회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외 한국어 보급을 위해 추진되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세종학당 자문위원회를 결성,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 호텔 4층 오키드 홀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앞으로 세종학당의 운영 자문에 응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조찬 협의회에서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은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방형 한국어 시스템인 세종학당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란 시간에도 자리를 함께한 자문위원들은 세종학당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이 자 사

이 자리에서는 몽골 지역에 새로이 개설된 몽골 국립사범대학 세종학당의 개설과정에 대한 사진과 자료도 보고되었다.

**참석자 명단:** 강현화(경희대학교 교수)  
 김성규(서울대학교 교수)  
 박동호(경희대학교 교수)  
 박영주(KBS 아나운서)  
 백봉자(경희대학교 교수)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유희림(YTN 부장)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이미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향록(상명대학교 교수)  
 최인호(한겨레신문사 기자)  
 이상규(국립국어원 원장)  
 이장협(국립중앙극장 진흥부장)  
 최용기(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 당연직)  
 이준석(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장)  
 김문오(국립국어원 연구사) 외 4인



# 가나

## 2.1.2. 2007년 제2차 세종학당 자문위원 협의회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6월 2일 2007년 제2차 세종학당 자문위원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4명의 자문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자문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위원장(백봉자 경희대학교 교수)과 부위원장(김준곤 변호사)을 선출하였다.

이어진 세종학당 운영 관리 규정에 관한 회의에서는 규정의 검토와 함께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세종학당 운영 관리 규정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종학당 자문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세종학당 자문위원 명단:** 백봉자(위원장, 경희대학교 교수)

김준곤(부위원장, 삼일법무법인 변호사)

강재형(MBC 아나운서)

강현화(경희대학교 교수)

김성규(서울대학교 교수)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동호(경희대학교 교수)

박영주(KBS 아나운서)

손희하(전남대학교 교수)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유희림(YTN 부장)

이관규(고려대학교 교수)

이미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장협(국립중앙극장 진흥부장)

임지룡(경북대학교 교수)

조향록(상명대학교 교수)

최인호(한겨레신문사 기자)

최용기(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 당연직)

# 이 자 사

### 2.1.3. 2007년 제3차 세종학당 자문위원 협의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지난 7월 27일, 문화관광부 5층 제2회의실에서 2007년 제3차 세종학당 자문위원 협의회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세종학당 사업의 현황 보고와 함께 세종학당 사업에 관한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새롭게 임명된 우정욱(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자문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다.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 자문위원회는 교재 편찬과 교육 과정에 관한 안을 서로 협조하여 만들기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참석 명단:** 백봉자(위원장, 경희대학교 교수)

- 강현화(경희대학교 교수)
- 김성규(서울대학교 교수)
-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박동호(경희대학교 교수)
- 박영주(KBS 아나운서)
- 송향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우정욱(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 유희림(YTN 부장)
- 이미혜(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이장협(국립중앙극장 진흥부장)
- 조항록(상명대학교 교수)
- 최인호(한겨레신문사 기자)



## 2.2. 세종학당 설립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

### 2.2.1. 한국어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2006. 12. 15.)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12월 15일 국회도서관 내 소회의실에서 「한글문화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대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국회문화정책포럼」(공동대표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어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주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1. 회의명
    -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2006년 12월 15일 (금) 14:00~17:30
- 장소: 국회도서관 내 소회의실
- 주최: 한글문화 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국회문화정책포럼, 국립국어원 공동 주최
- 토론자 및 진행 순서:
  - 사회: 손희하(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
  - 개회사: 이상규(국립국어원장)
  - 축사: 김근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당의장)
    - 김재윤(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이계경(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계진(한나라당 국회의원)
    - 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동영상 상영 “한국어 열풍, 아시아에 불다”
  - 기조 발표 “동북아시아 지역 한국어 보급 방안” 이장협(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 토론
    - 좌 장: 송향근(부산외국어대 교수)

# 이 것 은

토론자: 광병찬(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가나다순)

김석진(경북대 교수)

박영대(북경 한국문화원장)

배기찬(동북아시아사대위원회 실장)

우르진룬데브(주한 몽골대사)

이광석(경북대 교수)

정도상(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최근 한류의 영향 등에 힘입어 중국, 몽골, 일본 등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 열기에 국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해외 한국어 교육 발전 방안을 전문가 토론을 통해 국가적 전략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0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계, 언론계,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이 2시간 30분여 동안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을 철저히 파악, 이에 적절한 한국어 교육 전략 수립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목적을 고려한 해외 한국어 교육 발전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국내 한국어 교육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넷째, 현지의 언어문화와 교육 현실을 고려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섯째, 국내외의 민간 한국어 교육 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가나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글문화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국회문화정책포럼’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관련 부처와 민간 교육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것이다.



## 2.2.2.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세종학당에 관한 국회 토론회(2007. 4. 4.)

### 국어발전기본계획과 세종학당에 관한 국회 토론회 결과 소식

국립국어원과 이계진 의원실에서는 2007년 4월 4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어 발전 기본 계획과 세종학당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국민에게 좀더 많이 알려 국민의 성원 속에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추진될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열망하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것이다.

첫 번째 기본 발제는 이장협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는 국어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한 후, “이제 한민족의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 이 것 은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3대 중점 추진 과제(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 정비, 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전략 추진,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는 “1.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 정책의 확산,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3.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4. 국어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 소통 증진,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한글의 산업화, 10.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발표 가운데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언어정책대학원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과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언어권별 대역사전(학습용 웹사이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또 어문규범 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국가전문용어표준화센터 설치·운영,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교과서·법령문 등의 감수 제도 정착,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국어 상담소 지역별 국어 문화운동 거점화, 국어사용 실태의 정기적 조사, 국어 정보 종합 사이트 개발과 운영,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한국어 다양성 체험관 설립 따위를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은 전체 발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어발전기본계획은 목표치가 추상적이란 생각이 들고, 세부 추진 방안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했고, 국립국어원과 시민 사회를 연계 해서 국어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도 했다.

# 가나

이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권재일 교수는 토론으로 사업 수행의 성공 여부는 확실한 예산의 뒷받침에 달려 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46억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훨씬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정부와 국회는 예산 지원의 의지를 드높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 국어 보전과 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어 정책 당국자들이나 국회에서 개정 의지가 있는지 또 그를 실천할 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두 번째 기본 발제는 최용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이었다. 그는 “중국의 공자학원은 1개년 계획으로 우리의 10배인 4천억을 투자하는데 국내 10개 대학에 이미 개설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전략으로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세종학당이 추진하려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에 개설될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아시아적 문화 연대와 현직인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어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며, 대중적 한국어 문화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조항록 국제한국어교육회장은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한국어의 국외 확산을 추구하면서도 비전이나 목표 제시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번 국어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 ‘아시아적 문화 공동체의 실현’, ‘다인종·다민족 국가의 준비’, ‘소통·나눔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목표는 현 시대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국어 국외 보급이 대학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의 확산이 목표라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앞으로 교재와 교육 과정의 개발, 교수법 연구, 교원 양성 등에서 민간과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 이 것 이

송향근 이중언어학회장은 “세종학당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는 그 목표를 달리하여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대중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로 현지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표현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현지 특화형 교재,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현지 밀착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또 “세종학당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할 때 현지인 교사의 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자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어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 현지에서 일정 기간의 보수 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의 방안을 찾아야 하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예비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가 120여 명이나 되어 국회 의원회관을 가득 메웠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김기현 의원, 김명자 의원, 김재윤 의원, 박찬석 의원, 배일도 의원, 신기남 의원, 심재엽 의원, 이계진 의원, 이재웅 의원, 정중복 의원, 최구식 의원, 허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이 중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박찬석 의원, 신기남 의원, 김재윤 의원, 이계진 의원은 축사를 해 주었다. 이 외에도 한글학회, 한국어문화,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등 국어 관련 학회와 단체의 회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이계진 의원과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행사에 참석한 분들이 보여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행사를 마쳤다. 특히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된 국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 진흥 정책을 더욱 정성스럽고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던 좋은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구체적 성과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과 ‘세종학당’의

# 가나

의의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대국회, 대국민 홍보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예산 지원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데에 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대국회, 대국민 홍보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성원 속에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더 탄탄한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추진하는 일,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점증하는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는 일을 과제로 삼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중요 시책들을 꾸준히 실천해 갈 것이다.



개회사: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청중



축사: 박찬석 의원



축사: 신기남 의원

# 이제부터



축사: 김재윤 의원



축사: 이계진 의원, 사회: 손범규 아나운서



제1발제자: 이장협 토론회자: 권재일, 남영신(왼쪽부터)



제2발제자: 최용기 토론회자: 송항근, 조항록(왼쪽부터)

## 2.3. 세종학당 파견 교원 연수

###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 교육 시작

국립국어원에서는 5월 16일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의 입교식이 있었다.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 교원들의 교육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이번 교육은 5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견 예정 한국어 교원들은 한국어 교육 실습 및 한국어 규범과 한국 문화에 관하여 공부하면서 파견 교원으로서의 실무를 익히게 된다. 이번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가나

- 연수 과정 참여 대상자: 고인호, 김성숙, 김소연, 박지원, 서경숙, 송순미, 윤은미, 이승백, 임승연  
(이상 가나다 순)



### 3. 세종학당의 설립 정신

#### 언어 제국주의를 넘어서

지난 세기 동안 서방 제국의 식민 정책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언어 다종성이 무너지거나 다양한 언어 변이형이 획일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는 뒤로 물리쳐 둔 채, 언어 내부의 구조 분석 쪽으로만 몰입해 왔다. 인류 문화와 역사의 유일한 증거이자 가치 있는 자산인 다양한 언어나 방언이 소멸되는 것은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이나 부족의 언어를 조직적으로 멸시하고 짓밟는 언어 식민지화에 대한 일말의 문제점도 의식하지 않았던 언어학자들은 이제 지난 시대를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모든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나 방언은 나름대로

# 이 자 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언어나 방언에 해당하는 부족이나 민족 삶의 지혜와 생존 지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그들의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값진 인류 자산이다.

이 글은 피지배 민족 혹은 부족의 언어나 방언이 꺾어야 했던 식민 압제와 그와 파생된 우여곡절을 되돌아보는 일종의 반성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언어나 방언이 사멸한다는 것은 인문사회학자들의 양식이 될 귀중한 지적 재산의 상실을 의미하며, 결국 그 언어가 나타내는 문화 체계의 상실로 귀결되는 인류 문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국어나 조선어도 한낱 일개 방언으로 전락하거나 소멸되지 않을까? 이들 언어로 구성되는 우리의 문화도 영어에 떠밀려 일개 변방 잡종 문화로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어떤 공동체의 언어가 다른 공동체의 언어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이론화한다는 것은 곧이어 식민 언어 지배의 시도를 정당화하는 데 가담할 수 있게 된다. 조선조 오랜 시간 동안 한문과 한자가 우리의 말과 글을 지배해 왔고 또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일본어가 우리의 말과 글을 지배했으며, 그 이후 영어가 우리의 말과 글 속에 세포분열을 하듯 우리말과 글을 포식(捕食)하고 있다. 최근 영어마을을 곳곳에 설립하는 현상은 내면적 식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 모습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어의 세계화 국면은 60년 전 일제의 조선과 대만의 언어 식민지화나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가 콩고, 알제리, 차드를 언어적으로 식민화했던 상황보다 훨씬 내면적으로 정교하고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리핀에서 소수가 사용하는 영어는 타갈로그어를 비롯한 3개의 주요 원주민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으며, 튀니지에서 프랑스어가 아랍어, 몰타어, 이탈리아어를 지배하고 있다. 루이 장 갈베(2004)는 최대 중심 언어인 영어에 종속된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비롯한 주변 언어들이 언제, 어떻게 잡아먹힐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 가나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획일화, 표준화에서 다원화의 관점으로, 자본 중심에서 변두리로 우리의 눈길을 되돌려야 한다. 지난 세기 수수방관하여 잃어버린 인간 삶의 유산을 다시 복원하고 이를 불러 모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죽어 가는 강을 살려 내고 사라진 새와 물고기가 다시 되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하듯이, 소수의 언어의 미학이 우리의 일상 속에 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와 편리함의 고속 성장의 이면에 우리의 언어와 문화, 생물의 다양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류 미래의 운명이 걸린 생태, 문화,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절멸 위기에 있는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행동한다면 21세기는 진정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도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고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하여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생태주의자들은 종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있는가? 진화라고 하는 발전과 변화는 오로지 종의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만이 가능하듯이 언어의 변화도 언어의 다양함으로 창조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의 대표 단수만 옹호하는 일은 언어의 다양성 자체를 무너뜨리고 진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2006년 초에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님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세종학당 개설을 언급하신 이후에 여러 언론사에서 앞 다투어 세종학당 개설을 보도해 주었다. 기사가 나간 후에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 개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면서 물어왔던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서 그동안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를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세종학당을 또 개설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었다.

새 천 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지에서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은 한국어 학습 열풍이다. 지난 세기 영미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있었던 한국어 학습 동기가 한국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중국 일본을 필두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미 대륙, 심지어 중동·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까지 불고 있는 한국어 학습 열풍은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 이 것 은

벗어나 한국 문화가 지향하는 인간 중심, 가족 중심의 가치들이 아시아 민족 내부의 기저에 흐르는 영혼과 정서에 맞물려 있다.

지금의 학습 열풍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아시아권 전역에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면을 고려할 때 다분히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전략 부재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국민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의 지휘를 받는 ‘한국학교’는 ‘재외국민 교육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정규 학교로서 공관원이나 주재원의 자녀들과 같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35개의 ‘한국교육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되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동포들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 2,000여 개가 넘는 한글학교 역시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요한 북미와 유럽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의 분포 현황만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시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쉽게 한국어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계다가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국의 문화는 배제하고 한국문화와 역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에는 대단히 풍부한 한국문화와 역사가 담겨야 한다. 그러나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에게나 해야 할 한국문화와 역사가 담긴 교육 콘텐츠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 현지 국민에게 한국어를 교육했을 경우 현지 문화의 경계심과 우려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정치, 경제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의 문화적 연대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일방적인 문화 전파와 역사적 사실을 강요하는 방식의 교재 구성에서 벗어나 상대 국가의 문화와 역사와 민족적 정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 가나

교육을 통해 현지인들이 지닌 유구한 역사와 미려한 문화적 배경과 함께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서구 열강의 언어와 문화 침탈의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세종학당이 아시아 지역에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의 각국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0개의 세종학당을 개설하려고 한다.

아시아 지역에 개설될 세종학당의 근본 취지는 아시아적 문화 연대와 현지인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 문화의 교류와 한국어 교육이며,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극복한 대중적 한국어 문화의 교육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랄 뿐이다.